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다향대축제, 내달 3일 개막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서 내달 7일까지 5일간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등 9종 축제도 함께 개최

전국 최대 차 주산지이자 차 문화의 본고장인 보성군은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러포즈’라는 주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보성다향대축제는 47회를 맞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성다향대축제는 2024년에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보성차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성의 역사, 문화를 알리고 보성의 아름다운 차밭에서 차를 통한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는 축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보성군은 차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려는 시대 욕구에 발맞춰 보성차의 무궁무진한 변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차를 활용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전 국민에게 프러포즈한다.

개막식은 제47회 보성군민의 날과 함께 보성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지난 1월 자매도시를 맺은 하동군과 ‘다원결의(茶園結義)’ 설정(국여포먼스)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군과 하동군, 중국·일본 등의 차 문화관을 운영해 아시아의 대표 차를 맛볼 수 있으며, 전통 다례 시연, 말차 격투 체험, 차 로스팅 체험, 차 음식 시식회와 대한황실가(家) 다구전 등을 마련해 국내 최고 차 문화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핵심 콘텐츠는 △애프터 티(Tea) 파티, △보성애(愛) 물들 대(茶), △보성티마스터컵, △서울 속의 보성, △보성 다향대축제 주간, △보성 속의 서울 차(茶) 체험, △보성차 만들기, △차맛따기 등이다.

이외에도 행사장에서 구입한 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구를 빌려보성의 넓은 자연에서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디자인 그늘막아트테이드, 쿨선 소파(빈백) 등을 행사장에 설치해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는 9종의 보성 대표 축제가 총출동하는 통합대축제로 개최된다.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마라톤, 요트), 입일산 철쭉문화행사, 보성군민의 날, 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드론라이프쇼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포스터

트·드론라이프쇼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과 관소리성지에서 명창 주모제 및 추모 공연, 명인·명창 고수 경연대회, 전국 관소리 경연대회 등으로 인제 발굴과 관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

2024년 한국유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보성울

포출밭해변에서 2개(유티미스트, 토포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의 레이스 경기를 진행한다.

제20회 입일산철쭉문화행사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인 응치면 입일산에서 열린다. 철쭉 제례와 산림문화 행사, 숲속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환상적인 풍광 속에서 즐길 수 있다.

제47회 보성군민의 날은 5월 3일 보성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보성군민의 상 수여, 청년 도약 보성 기념 행사, 체육대회, 북면가왕(노래자랑) 등 군민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행복한 행사를 만들 예정이다.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는 오는 5월 5일 한국차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도전골드벨, 경품 추첨, 청소년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제2회 데일리콘서트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성역 일원에서 청년, 중장년,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콘서트다. 장르별 화려한 출연진과 무대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드론라이프쇼는 5월 4일 데일리콘서트 이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으로 나아갈 기틀을 만든 보성군 열선루와 천년의 보성 차(茶)를 보여 주는 빛의 향연을 펼친다.

/보성=장국도 기자

장흥 ‘편백산업 활성화’ 파트너 확보

군, 대명소노시즌·지앤지와 업무 협약 체결

장흥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명소노시즌, ㈜지앤지와 ‘편백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정현철 ㈜대명소노시즌 상무이사, 강태구 ㈜지앤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장흥군과 기업들은 편백정유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의 생산·가공·판매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제품생산 주원료인 편백 정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각 사가 가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편백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홍보와 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명소노시즌은 독일산 프리미엄



장흥군수, 기업대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협약식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침구, 프레임 등 배당 제품 외에 슬립 부츠, 담요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출시하고 있다.

㈜지앤지는 편백 관련 제품 제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편백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무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최종보고회

경제적 타당성 결과 ‘적합’...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총력

무안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농협 등 유관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용역의 목적과 현황 및 수요분석을 비롯해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 및 시사점, 입지 및 경제성 분석,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제언 등을 용역사에서 발표했다.

용역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제적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적 입지는 남양 또는 용기구로 분석됐다. 특히 기획생산의 조직화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중·소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유사사례 분석에서 성공 사례만 포함됐고 실패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견, ▲농가의 수익 분석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사업의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전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이 잘 된 것 같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되는 부분은 고민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농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 및 유관단체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4월 중순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무안=김성문 기자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쿠킹 클래스’ 시즌3 운영

목포시는 4월부터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쿠킹클래스 시즌 3’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목포의 다채로운 맛을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며,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아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로컬 육아 크리에이터에게 배우는 키즈 쿠킹클래스(2회), 커플이 함께 피크닉 요리들을 만드는 커플 클래스(2회), 목포의 디저트 맛집 대표에게 직접 배우는 디저트 클래스(2회), 목포 고유의 식재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5회) 등 모두 11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매회 20명을 모집하며, 오는 13일 첫 번째 커플 클래스가 진행된다. 관심있는 경우 목포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 링크트리, 카카오톡)에서 ‘목포는 맛있다’ 계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즌에는 해관의 야외공간을 활용해 각 클래스별 주제에 맞는 문화공연을 추가해 기존 쿠킹클래스와 차별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은 옛 목포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음식, 문화,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곡성물 ‘4월 구매왕 찾는다’ 누적 구매액 상위 20명 선정

곡성군 온라인 종합 쇼핑몰 곡성물에서 4월 구매왕을 선정해 곡성군 대표 특산물인 곡성멜론 2024년 첫 출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누적 구매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명에게 곡성군 대표 특산물인 곡성멜론 한박스(8kg)를 경품으로 증정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이다.

곡성군 대표 특산물인 곡성멜론은 지난 2022년 멜론 자물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성공했다. 곡성멜론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해 국내 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군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해 시설 개선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곡성=홍경백 기자

완도, 바다 정원화·숲 조성 사업 보고회 개최

청산면에 잘피 6만 주 이식... 신지면에 잘피·해조류 복합 숲 조성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해조류 자원 조성 사업인 ‘바다 정원화·바다 숲 조성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바다 정원화·바다 숲 조성 사업’은 완도군 해역에 해조류, 잘피 이식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는 신우철 군수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FIR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바다 정원화 사업’ 결과 보고와 ‘2024년 바다숲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FIRA)에서는 ‘바다 정원화 조성 사업’은 지난해 청산면 국화리 해역에 잘피 60,000주를 이식했으며, 과거 사업 지역인 청산면 지리과 국화리에 감태 이식 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인근 해역으로 감태가 확산된 것을 확인



완도군청에서 열린 바다 정원화·바다 숲 조성 사업 보고회

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바다 숲 조성 사업’은 올해 신지동고리에 잘피·해조류 복합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잘피는 맹그로브숲, 염습지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서 인증한 대표 블루카본으로 10,000㎡당 연간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

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완도 해조류 양식이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 연구를 위해 미 에너지부에서도 우리 군을 찾았다”면서 “완도산 해조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만큼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원화, 숲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2025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200억 투입... 청년층 인구유입·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기대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32평형), 60㎡(24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50호 이상 건립하고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거주기간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청년은 취업 여부에 따라 1회 연장, 신혼부부는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라 1~2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도비 150억원에 군비 50억원을 더해 총 200억원을 투입해 집도입 일원에 만원주택 60호를 신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협업해 2025년 1월에 착공, 2026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도에서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 획이다”며 “또한 만원주택 신축이 겹치지 않아 떠나는 인구유출을 막고 살기좋은 청정 진도군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반려식물의 향연’ 화순서 전국 다육가드닝 대회 개최

오는 19~28일 고인돌봄꽃축제장 전시

화순군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리는 ‘2024 화순 고인돌봄꽃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주최·주관하고 화순다육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40팀을 선발하

고 19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발한다.

다육 매니아들이 가드닝 테이블가로 1.5m x 세로 0.9m에 직접 키운 작품을 출품하며 ▲아름다운 수형 및 건강해 컬러 ▲화분과의 어울림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감각적 표현을 통한 나만의 작품 연출 등을 심사한다. /화순=주용현 기자

이번 다육가드닝 대회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와 연계해 반려식물 다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19일부터 28일까지 축제장에서 반려식물 다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또 화순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작약’으로 만든 차양용 향주머니를 다육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교통대책 안전 총력

행사장 인근 농로 통행 제한·입관관 설치

강진군은 지난 6일 개막한 오고 가는 길까지 즐거운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선사하기 위해 교통안내, 주차장, 무료셔틀버스 등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 가는 방법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사장 인근 농로를 통한 축제장 내 차량진입이 불가피하게 통제되므로 교통안내를 통해 주차 후 행사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신기마을에서 마을뒷길을 통해서 축제장으로 진입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미리사 삼거리로 유도하는 교통안내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강진버스터미널과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장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는 터미널에서 축제장 방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축제장에서 터미널 방향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축제 전 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군청, 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적정배치, 경찰 및 소방 요원을 배치해 축제장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 /강진=한홍수 기자